

발제문 (임경훈)

일시 및 장소: 2008년 3월 15일 삼성경제연구소

2007-08 러시아 의회 및 대통령 선거: 결과와 함의

* 확실성 속의 불확실성

- 퇴임 이후 푸틴이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그러나 작년 하반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푸틴이 후계자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 퇴임 후 푸틴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NATIONAL LEADER, 대통령 연임, GAZPROM 회장, 총리 등등). 특히 Zubkov 총리 임명 이후 몇 달간 푸틴의 의중을 알기 더욱 어려워졌음 (조기 퇴임 및 재출마 가능성 등).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러시아 권력 승계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이 그려졌으나, 향후 권력 배분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음.

* DUMA 선거

1. 변경된 선거제도

○ 450석 모두 전국 정당명부에 기초한 비례대표제로 전환. 의석배분 자격을 갖는 최소득표율 5%에서 7%로 높임. 각 정당 명부의 최대 50%까지는 당원이 아닌 후보자로 구성할 수 있음.

○ 명부의 지역 구분 의무: 정당 명부를 전-연방 그룹(3명의 최고 후보: 이번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 당은 푸틴 1명만 지명)과 지역 그룹(이번 선거의 경우 정당에 따라 83개 - 109개 설정)들로 나뉘어야 함.

- 정당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 지역별로 유력한 후보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 생김

○ 의석 배분 방식: Hare식 (총유효득표수÷총의석수 450=배분정수. 각 정당의 득표수를 배분정수로 나눠 정수부분 만큼을 해당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는 경우 잉여표의 최대 순으로 배분).

- 최소득표율을 통과한 정당의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배분.

- 2007년 선거에서는 United Russia, the Communist Party, Liberal Democrat, Fair Russia(기존의 Motherland에 기반) 4개 정당이 통과했고 이들이 전체 투표의 90%를 차지. 정당 수를 줄이려던 의도 달성.

○ 정당을 바꾸면 자동으로 의석 박탈. 탈당을 할 경우, 무소속으로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음.

○ 2001년 6월 11일 정당법에 의거해 등록된 정당만 선거 참여. 최소득표율 통과를 위한 정당 연합 (선거 블록) 불가.

○ 최소투표율 조건 삭제됨

- 과거에는 25%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의 권한 강화, 2단계에 거쳐 모든 후보자를 평가·승인

- 대통령이 선거 공고(2007년 8월 30일~9월 18)- 30일 안에 정당 위원회가 후보자 명부를 CEC에 제출(후보자의 시민권, 고용 상태, 재산 및 수입에 관한 정보 포함)- 7일 안에 CEC가 거부 또는 인가 - 거부당한 경우, 정당은 대법원에 항의 가능. 대법원은 5일 내 판결. 인가 후엔 명부 수정 불가(후보자가 죽거나 탈퇴하는 경우 제외)

- CEC는 웹상에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게시

○ 이전 Duma에서 의석을 차지했던 정당(2003년: United Russia, the Communist Party, Liberal Democrat, Motherland)은 서명을 모으거나 공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음. 이전 Duma에서 의석을 가지지 못한 정당은 2십만 명의 서명(한 주에서 만 명까지만 가능)을 모으거나, 6천억 루블의 공탁금 지불. 총투표 수에서 4% 이상 득표하면 공탁금 돌려줌.

○ 선거일 45일 이전까지 모든 정당은 nomination paper 제출, 서명 제출 또는 공탁금 지불을 완료해야 함- CEC가 후보자 정보의 정확 여부와 서명의 유효 여부를 체크함. 틀린 내용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림- 서류 제출 후 10일 안에 CEC는 투표용지에 올라감을 승인해 주거나 거부- 정당은 대법원에 항의 가능. 대법원은 5일 내에 판결. (CEC는 절차 또는 선거법 위반, 서명 샘플의 5% 이상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승인을 받은 정당이 2개가 안 되는 경우, 2달 동안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

9. 선거비용 제한

- 연방 차원- 4억 루블. 정당 자비가 50%를 넘으면 안 되고 나머지는 개인(최대 28만 루블), 조직(최대 140만 루블)의 기부로 충당해야 함 / 지역 차원-지역의 인구에 따라 6백만~3천만 루블.

- 외국계 회사와 조직, 외국 자본이 30%이상인 개인이나 러시아 회사는 기부를 할 수 없음.

2. 선거 결과

Parties and coalitions	Votes	%	Seats	Dec. 7, 2003	Oct. 1, 2007
United Russia (Единая Россия, <i>Edinaya Rossiya</i>)	44,714,241	64.30	315	222	303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i>Kommunističeskaya Partiya Rossiyskoj Federacii</i>)	8,046,886	11.57	57	52	47
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i>Liberal'no-demokratičeskaya Partiya Rossi</i>)	5,660,823	8.14	40	36	30
Fair Russia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i>Spravedlivaya Rossiya</i>)	5,383,639	7.74	38	37	32
Agrarian Party of Russia (Аграрн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i>Agrarnaya Partiya Rossi</i>)	1,600,234	2.30	—	2	
Russian Democratic Party "Yabloko" (Российск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Яблоко", <i>Rossiyskaya Demokratičeskaya Partiya "Yabloko"</i>)	1,108,985	1.59	—	4	
Civilian Power (Гражданская Сила, <i>Grazhdanskaya Sila</i>)	733,604	1.05	—		
Union of Right Forces (Союз Правых Сил, <i>Soyuz Pravych Sil</i>)	669,444	0.96	—	3	
Patriots of Russia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i>Patrioty Rossi</i>)	615,417	0.89	—		
Russian Social Justice Party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i>Rossiyskaya Partiya Spravedlivosti</i>)	154,083	0.22	—		
Democratic Party of Russia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i>Demokratičeskaya Partiya Rossi</i>)	89,780	0.13	—		
무소속			0	68	24
군소정당 합계			0	32	
<i>Valid ballot papers</i>	68,777,136	98.91			
<i>Invalid ballot papers</i>	759,929	1.09			
Total (turnout 63.71%)	69,537,065	100.00	450	447	444
Eligible voters	109,145,517				
Source: Russian Election Commission					

3. 이번 DUMA 선거의 함의

- 선거가 푸틴에 대한 일종의 referendum으로 변질, 푸틴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됨; 퇴임 후 푸틴에게 강력한 MORAL SUPPORT 및 권력기반 제공. 정당이 아니라 Putin만 강조됨,

Vote for Putin!

- 선거 결과가 사전에 확실함에도 크레믈린이 인위적으로 투표율 높이려는 독려; 이를 위해 가부장적 통치에 의해 사회를 순치한 이후 새삼 동원할 필요성 생김; 서방 및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레토릭을 광범하게 사용
- 1년전 최소 투표율 requirement 없어짐
- 일당 지배 체제, 통합 러시아가 이미 지방 하부까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 소련 공산당과 매우 유사한 정도; 우당까지 합하면 총 403 석 (90% 이상의 의석) 확보.
- 지역별로 득표율에 차이 있음: 모스크바, 삐체르부르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50-55% 득표율
- 유권자의 안정 및 현 상황 지속 희망을 반영
- GOVERNOR들의 충성도 및 역량 평가
 - 83개 지역 LIST 중 62개에서 주지사에게 1번 배정
 - 지역 LIST에서 배제된 GOVERNOR들은 사실상 BLACKLIST에 오른 셈임, PUTIN에 의한 숙정 작업 일환
- 집권세력 내 엘리트 배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
 - 주지사,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충성도 평가, 지역정부 지도자들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두마 공천
 - 선거제도 변화로 당선 후 의원직을 곧장 담당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다시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음
- 야당과의 정책 토론 거의 없었음, 통합 러시아당만이 TV NEWS에 커버됨
- LIBERAL 더 몰락: 국고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음은 물론 선거운동시 국고에서 지원된 비용 환불, 예탁금 몰수.
- 공산당은 전국 득표율은 지난 선거(11.6%)와 거의 같은데 총 의석 수 5석 증가

* 대통령 선거

1. 선거 결과

	Votes	%
Dmitry Medvedev, United Russia	52,031,601	70.2
Gennady Zyuganov, KPRF	13,155,695	17.8
Vladimir Zhirinovskiy, LDPR	6,939,977	9.4
Andrei Bogdanov, Ind.	958,868	1.3
Turnout (estimated)		68%

참고: 사전 여론조사

Q3a-t. If a new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next Sunday, would you vote and which of the current politicians would you vote for? (NB: open list)

	Jun-07	Jul-07	Aug-07	Sep-07	Oct-07	Dec-07	Jan-08	Feb-08
	(Percent all replies)							
Dmitry Medvedev	3	3	5	5	5	7	35	39
Vladimir Putin	44	48	40	32	35	29	14	14
Gennady Zyuganov	4	4	4	4	4	4	5	6
Vladimir Zhirinovskiy	3	3	2	3	2	3	4	5
Sergei Ivanov	5	4	5	6	5	4	3	1
Other than top 5	6	4	3	3	5	8	3	1
Against all	2	1	2	--	--	--	--	--
Wouldn't vote	6	8	7	8	7	6	7	8
Don't know	19	18	22	28	26	33	24	20
Don't know if I'll vote	8	7	10	11	10	7	8	8

Source: Levada Center, nationwide surveys, 2007-2008

Q3b-t. If a new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next Sunday, which of the candidates on this card would you be most likely to vote for? (NB: list excludes Putin)

	Jun-07	Jul-07	Aug-07	Sep-07	Oct-07	Nov-07	Dec-07	Jan-08	Feb 08
	(Percent)								
Dmitry Medvedev	17	17	18	16	14	13	19	56	58
Gennady Zyuganov	9	8	7	8	7	9	7	6	8
Vladimir Zhirinovskiy	9	6	6	7	7	6	7	6	7
Andrei Bogdanov	na	na	na	na	na	na	na	1	1
Mikhail Kasyanov	na	na	na	na	na	na	na	1	na
None of these	na	na	na	na	na	na	na	7	8
Wouldn't vote	11	14	14	12	11	10	10	4	3
Don't know	20	22	23	27	26	22	28	15	13
Don't know if I'll vote	8	6	10	7	7	9	5	4	2
Other candidates	27	27	22	24	28	31	24	na	na

Source: Levada Center, nationwide surveys, 2007-2008

- Duma 선거 득표율 초과: 일반적으로 실로비키들은 60% 정도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짐
- 일종의 “사회계약” 작동, 푸틴 시대의 지속으로서 메드베데프 지지
- campaign 없는 선거: TV 토론 등 정책에 대한 토론 배제, Nashi 활동 금지, 반서방적 언급 자제.
- 선거 결과를 조작할 필요 없었음.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 행사보다는 충성의 동원이라는 의미

2. 왜 Medvedev를 선택했는가?

- 권력 기반이 약하고 신뢰할 수 있는 young brother 선택: 취약한 권력기반이 오히려 후계자로서 도움, 자신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적이 없는 영원한 2인자. PUTIN 덕에 모든 것을 얻은 자.
- Sergei Ivanov에 비해 업적도 약함. 이바노프는 군방 부분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 반해 메드베데프는 이른바 National Projects에서 별 성과 목 거두었다고 평가됨.
- 일반적으로 liberal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유럽인으로 자기 정체성 규정, 자유시장경제 주장, ‘주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함. 그러나 과연 liberal인지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음. 작년에는 liberal로 알려진 Gref, Kudrin의 영향력도 감소.
- 푸틴의 modernization plan을 추진할 계승자. 그러나 그의 친시장적 아젠다와 권위주의적인 현 정치체제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그동안 러시아는 고

에너지에 힘입어 주요 개혁 조치나 투자를 미루어 왔음.

- siloviki들 사이에서 후계 구도에 대한 합의 이루기 어려운 상황. 특히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Igor Sechin (Rosneft 회장 겸임), FSB 국장 Nikolai Patrushev, 법무성 장관 Vladimir Ustinov, 철도성 장관 Vladimir Yakunin, Rostekhnologia의 Sergei Chemezov, 연방마약국 Viktor Cherkesov 등. 메드베데프도 이들 siloviki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 이들은 푸틴이 계속 연임하기를 희망. 푸틴 임기 말에 이들 사이의 불화, liberal들에 대한 이들의 공격이 부분적으로 노출됨.

- 이런 점에서 푸틴의 Zubkov 총리 임명, 메드베데프 선택 등 일련의 행보는 자신의 가신들에 대한 정치적 coup. 푸틴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staus quo 유지에 잠정적 동의.

3. 향후 시나리오

○ Diarchy

- 푸틴의 권력 행사 의지 분명
-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고 싶어함. 러시아식 루즈벨트 지향. 헌법을 지키면서도 권력 행사 방법 모색
- 향후 10-15년간 자신의 국가발전 전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함
이른바 RUSSIAN DOCTRINE을 장기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 현재의 국가 시스템을 제국의 형태로 재편, PSEUDO-PUBLIC ORGANS, MEGA STATE CORPORATIONS, MACROECONOMIC ZONES 등등

○ Diarchy의 안정성 문제

1) 메드베데프의 독자적 권력 구축으로 전개

- Alexander Voloshin의 영향력 회복 문제
- 푸틴이 Belarus와의 연방제 구축 후 연방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
- 가능성 낮음
 - 푸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권력기반을 이미 보유 (두마 2/3, 상원 1/3, 지방의회 1/3)
 - 인기 없던 엘친에 의해 지명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

2.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

- 메드베데프가 엘리트들간의 분쟁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performance가 나쁠 경우, 즉 국가와 사회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깨질 경우

3. 강력한 총리 - 약한 대통령 구도 지속

- 헌법 바꿀 필요 없이 총리 권한 강화 가능, 프랑스식 半대통령제의 러시아 판
 - 최근 푸틴과 메드베데프 사이에 권력 배분에 관해 다소 뉘앙스가 다른 언급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을 권력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기에 너무 시기상조임.
- 문제는 총리직이 일종의 scapegoat 라는 점.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해 푸틴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위험 요소. 따라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름. 지금까지와는 달리 총리가 국방, 외교, 국가발전전략을 담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
- 크레믈린 보좌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그리고 누가 FSB Chief를 해임할 수 있는가가 관건
- 푸틴의 현재 의도가 무엇인가와는 별개로 엘리트 내 갈등 등의 이유로 푸틴이 강력한 총리로 남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